



FRIEDRICH WILHELM
RAIFFEISEN

200 JAHRE

프리드리히 빌헬름 라이파이젠과 그의 업적: 협동 조합

프리드리히 빌헬름 라이파이젠(1818년 함/지크에서 출생, 1888년 에데스도르프에서 사망, 오늘날 노이비드에 안장)은 군 제대 후 바이어부시에서 시장으로 선출되었으며(1845/48), 그 다음에는 플라머스펠트에서 (1848/52), 또 이어서 헤데스도르프에서(1852/65) 시장직을 지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1865년에는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바이어부시 재직 시절부터 그는, 사람들이 구체적인 어려움에 마주쳤을 때 자기 구제와 자기 책임의 방식으로 극복해나갈 수 있게끔 하는 형식들을 찾으려고 끈기있게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을 그는 플라머스펠트와 헤데스도르프에서 이어나갔으며, 농업 인구의 고통을 완화해주기 위해 대출 조합이라는 형식을 개발해냈습니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라인프로이센 지방의 농업 조합과 또 쾰비드 제후의 지원을 받아, 협동 조합을 설립할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 그가 눈이 멀어가면서도 죽는 순간까지도 지치지 않고 노력하여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사업 말입니다. 이때 그가 설립했던 바가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협동 조합 형식들의 맹아를 이루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인류의 비물질적 문화 유산

협동 조합들에 있어서 의미깊은 날입니다 - 2016년 11월 30일, 독일에 의해 처음 제시된 협동 조합이라는 아이디어가 유네스코의 문화 유산 대표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이 국제적인 문화 조직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사람들의 공생이라는 맥락에서 협동 조합이 차지하는 의미에 방점을 찍은 것입니다. 독일에서 협동 조합이라는 아이디어와 그 실행 방식들은 널리 전파되어 있으며, 사회에 깊숙히 새겨진 문화적 형식입니다. 독일인들 네 명 중 한 명은 특정 협동 조합의 회원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8천만 명이 협동 조합에 속해 있습니다 - 협동 조합 설립은 현재적인 사회 문제들에 대해 늘 대답을 주어왔고 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협동 조합은, 예를 들어서 지역 활동이나 사회 통합을 통해 빈곤을 감소시키는 효과 등을 낳으며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협동 조합을 통해서 사람들은 같은 프로젝트의 공동 소유자로서 동일한 눈높이에서 서로를 대하게 됩니다. 협동 조합 가족이란 언제나 연대, 정직함, 책임 및 민주주의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움직임으로 여겨져왔습니다. 오늘날 이는 문화적으로 지대한 의미를 지니며, 특히 이제는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번 유네스코 결정을 위해, 2013년 독일 프리드리히-빌헬름-라이파이젠 협회와 독일 헤르만-슐체-델리취 협회가 공동으로 응모를 주선했으며 이는 독일 연방을 거쳐 성공적으로 유네스코 측에 전달되었습니다.

프리드리히 빌헬름 라이파이젠의 생애

| | |
|--------------|--|
| 1818년 3월 30일 | 출생: 프리드리히 빌헬름 함/지크의 라이파이젠 |
| 1835년까지 | 사이펠 신부를 통해 신앙 교육과 학교 교육을 받음 함 |
| 1835-1843 | 퀵른, 코블렌츠와 자인에서 군복무 |
| 1843-1845 | 마이엔 지방 관청에서 행정직 |
| 1845년 1월 15일 | 바이어부쉬의 시장직에 시장으로 임명됨 |
| 1845년 9월 23일 | 레마겐 출신의 에밀리 스토크와 결혼 |
| 1848년 3월 22일 | 플라머스펠트 시장직에 시장으로 임명 |
| 1852년 8월 24일 | 헤데스도르프의 시장직에 시장으로 임명 |
| 1862년 |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를 신청함 |
| 1862년부터 | 수많은 저축 및 융자 기관 설립에 조연자 역할 |
| 1863년 | 헤데스도르프에서 에밀리 라이파이젠 사망 |
| 1865년 | 은퇴하고 마리아 펜젠로트와 결혼 |
| 1866년 | 도서 "농업 인구의 고층에 있어 구제 수단으로서의 융자 기관" 발행 |
| 1888년 3월 11일 | 헤데스도르프에서 사망. 1888년 3월 14일 헤데스도르프 공동묘지에 안장됨 |